

##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종교성의 조절효과-

강 철 희<sup>+</sup>

(연세대학교)

허 영 혜

(연세대학교)

최 영 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요약]

본 연구는 종교와 세속적 기부행동(secular giving)의 관계에 있어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종교와 기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의 『2012 기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종교 및 종교성과 기부행동의 관계를 토빗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개신교와 가톨릭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기부를 행하고, 동시에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과 종교성은 기부의 절대적 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결합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적 기부규모에서 소득의 크기를 통제시킨 개념인 기부노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종교유형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고,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과 종교성이 기부노력에 정적인 방향에서 결합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교와 종교성에 초점을 두며 이들 변수에서 기부로 이어지는 기부행동 기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초석을 제공하고, 종교적 배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관들의 모금전략 수립에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기부행동, 기부규모, 기부노력, 종교, 종교성, 조절효과

\* 본 연구는 2013년 『BK21 플러스』 인문사회분야 『신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창의 융합 사회복지 인재 양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동저자인 최영훈의 2013년 석사학위논문에서 수정·발전시킨 것임.

+ 주저자 chulheekang@yonsei.ac.kr

## 1. 서론

사회속의 인간이 겪는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온 사회복지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상호부조(mutual aid), 그리고 자선(charity/philanthropy)으로 구분된다(Handel, 2009: xi-xiii). 이 중 상호부조와 자선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는데 현대 복지 국가의 등장과 함께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쇠퇴한 상호부조와는 달리 자선은 오늘 날에도 민간 복지 자원의 기본 공급처로서 민간영역의 사회서비스가 생산 및 전달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자선의 뿌리를 보면 그 근간은 온전히 종교적인 것이다. 즉 신의 사랑에 보답하는 이웃을 위한 돌봄의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서구에서는 유대교의 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Robbins, 2006: 14). Charity라는 용어가 돌봄을 의미하는 'cares(오늘날의 care)'에서 파생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모방해서 이웃에 대한 돌봄으로 실행하는 것이 자선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주요 종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삶의 여건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적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Wuthnow, 1991: 130), 자선적 활동(charitable action)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 왔다(Hodgkinson, 1990: 292; Wuthnow, 1991: 155). 이렇게 발전해 온 자선은 종교를 토대로 진화해 온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오늘 날에도 자선의 구체적 실천방법인 기부는 민간 복지자원 공급의 핵심 기제로서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공 복지자원이 매우 미약했던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기독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모금된 해외로부터의 기부금은 주요 민간 복지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최근 들어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기부 참여의 저변과 강도가 종교를 넘어 다각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교를 갖는 시민들의 활동을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2009년 기준 종교가 있는 시민들의 사회를 위한 기부, 즉 세속적 기부(secular giving) 참여율은 66%<sup>1)</sup>인 반면 종교가 없는 시민들의 기부참여율은 46%이다. 기부규모에 있어서도 종교가 있는 시민들의 세속적 기부규모는 23만원<sup>2)</sup>인데 반해 종교가 없는 시민들의 기부규모는 1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름다운 재단, 2010: 226-231). 이러한 통계자료만 보아도 기부행동에 있어 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비해 정부의 재정이 지속적인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의 기부를 통한 민간영역에서의 복지재정 충당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종교와 관련된 시민들의 기부행동은 실제적 기여의 비중을 볼 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자선과 기부행동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선의 시발점이자 촉진 및 강화 기제라 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Hodgkinson and Weitzman, 1996; Bekkers and Wiepking, 2007: 5에서

1) 종교유형별 기부참여율은 개신교신자의 71%, 가톨릭신자의 67%, 불교신자의 59%임.

2) 종교유형별 평균 기부규모는 개신교신자 47만원, 가톨릭신자 35만원, 불교신자 25만원임.

재인용). 그리고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종교가 세속적 기부행동에 정적인 방향에서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고하고(황창순·강철희, 2002; 홍은진, 2005; 박태규 외, 2008; 김지혜·정익중, 2012; Regnerus et al., 1998; Park and Park, 2004; Bielefeld et al., 2005; Vaidyanathan et al., 2011), 종교 유형별 또는 교파별 기부행동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Van Slyke and Brooks, 2005; Bekkers and Schuyt, 2008; Vaidyanathan et al., 201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시민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기부행동이 상이한 수준에서 차이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종교유무 및 종교유형에 더하여 그 종교에 대한 실제적 활동수준 또는 헌신수준으로 정의되는 ‘종교성(religiosity)’이 주목받고 있다. Lyons와 Nivison-Smith(2006: 434)는 기부행동의 예측요인에 있어 종교 그 자체보다도 종교에 대한 헌신, 즉 종교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종교성과 기부행동은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고하는데(강철희 외, 2012; Reed and Selbee, 2001; Lyons and Nivison-Smith, 2006; Bekkers and Schuyt, 2008; Vaidyanathan et al., 2011), 일부의 연구에서는 종교 및 종교성이 세속적 기부행동에 차별적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고도 보고하기도 한다(강철희·주명관, 2008; Lunn et al., 2001; Brooks, 2004; Eckel and Grossman, 2004; Brown and Ferris, 2007; Forbes and Zampelli, 2013).

다양한 연구를 통한 지식의 확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종교 및 종교성에 대한 연구와 이론적 지식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종교적 배경에 기반한 모금활동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낸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기구, 컴패션 등의 자선조직들의 성과를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서도 기부에 대한 종교와 종교성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지만,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본 연구는 종교, 종교성, 세속적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종교성은 종교가 있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해야 생성될 수 있는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모형설정에서 종교와 종교성을 서로 독립적인 변수로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즉 기부행동의 예측요인을 검증함에 있어 종교와 종교성 중 하나의 변수만을 선택하거나 두 변수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과 논의를 진행해온 기존의 연구(Regnerus et al., 1998; Bekkers and Schuyt, 2008; Vaidyanathan et al., 2011; Forbes and Zampelli, 2013)와는 달리, 본 연구는 종교와 세속적 기부의 관계에 있어 종교성의 조절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실증적 분석은 종교와 기부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넘는 이론적 지식의 구축에 기여하고, 더불어 비영리조직의 개인모금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

앞서 강조하였듯이 자선(charity)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의 하나인 기부는 종교를 토대로 진화해왔으며,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존재로 신을 개념화하면서 자신들도 돌봄을 제공하는 존재(giver)가 됨으로써 신을 모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Robbins, 2004: 237). 이런 동인에서 발전된 자선은 종교적 의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 후 신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실천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교리가 되면서 서양을 중심으로 자선은 이웃과 사회를 돌보는 핵심적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Payton, 2004: 374).

이처럼 자선은 종교적 가치와 실천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즉 대부분의 주요 종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삶의 여건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적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인 자선적 기부의 실천까지도 의무화한 전통을 발전시켜왔다(Wuthnow, 1991: 130). 아울러 많은 종교조직들이 신자들에게 타인에 대한 돌봄과 연민(compassion)의 태도를 지니도록 교육하면서 자선적 활동(charitable action)을 구체적인 실천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 왔다(Hodgkinson, 1990: 292; Wuthnow, 1991: 155). 특히 대부분의 종교적 예배에서 헌금을 걷는 의식이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정기적인 헌금을 통해 타인을 돌보는 세속적 기부행동으로까지 이전 또는 확장시키는 기제가 되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Chaves, 2004: 142-143).

이러한 배경에서 자선 및 기부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종교는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Hodgkinson and Weitzman, 1996; Bekkers and Wiepking, 2007: 5에서 재인용). 대부분의 연구에서 종교를 갖는 것과 세속적 기부참여 및 기부규모는 정적인 방향에서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고한다(황창순·강철희, 2002; 홍은진, 2005; 박태규 외, 2008; 김지혜·정익중, 2012; Regnerus et al., 1998; Park and Park, 2004; Bielefeld et al., 2005; Vaidyanathan et al., 2011).

이와 함께 종교유형별 또는 교파별 기부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Van Slyke와 Brooks(2005: 207)의 연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기부참여 가능성 및 기부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보고한다. Bekkers와 Schuyt(2008: 88)의 연구에서는 준거집단인 가톨릭에 비해 개신교 및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경우 세속적 기부규모가 유의하게 더 높다고 보고한다. 한편, Vaidyanathan 외(2011: 463-466)의 패널데이터 연구에서는 세속적 자선조직에 대한 기부(donations to noncongregational nonreligious charities)에서 유대교인들이 준거집단인 복음주의 개신교인(Evangelical Protestant) 비해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고 기부규모도 더 크다고 보고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기부행동이 상이한 차이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세속적 기부규모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 Forbes와 Zampelli(2013: 2486)는 세속적 기부규모에 있어서는 종교유형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Brooks(2004: 427)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세속적 기부규모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종교유형에 따른 기부참여의 정기성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보고된다(강철희·주명관, 2008).

이처럼 종교유무 및 종교유형이 기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이지만,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또한 어떤 종교유형이 세속적 기부행동에 더 적극적인지에 대한 결과도 연구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종교와 기부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2) 종교성과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

종교유무 및 종교유형에 대한 관심에 더해 최근 종교에 대한 실제적 활동수준 또는 헌신수준으로 정의되는 '종교성(religiosity)'에 주목해서 이의 기부행동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관련해서 Lyons와 Nivison-Smith (2006: 434)는 종교가 있지만 종교적 서비스에 거의 또는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고 기부규모도 더 작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성이라고 지적한다.

종교성과 관련해서 측정이 다양하게 이뤄지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종교적 예배에의 참석빈도(Regnerus et al., 1998; Eckel and Grossman, 2003; 2004; Bekkers and Schuyt, 2008; Vaidyanathan et al., 2011; Forbes and Zampelli, 2013)이다. 그 외에도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Edmundson, 1986; Reed and Selbee, 2001; Brown and Ferris, 2007; Wang and Graddy, 2008), 종교 활동 참여에의 적극성(강철희 외, 2011; 2012) 등도 활용된다. 아울러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배참석빈도와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활용하기도 한다(Regnerus et al., 1998; Vaidyanathan et al., 2011; Forbes and Zampelli, 2013).

종교성을 예배참석빈도로 측정하여 종교성과 기부행동의 연관성을 검증해 본 연구들은 예배참석빈도가 기부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Regnerus et al., 1998; Bekkers, 2003; Eckel and Grossman, 2003; Lyons and Nivison-Smith, 2006; Bekkers and Schuyt, 2008).

종교성을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한 연구 중 Reed와 Selbee (2001: 773)는 판별분석 결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기부, 자원봉사, 시민활동에의 핵심적인 참여자 집단(civic core)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신앙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Edmundson, 1986; Halfpenny, 1990)

종교성을 예배참석빈도와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모두를 통해 측정한 연구에서는 예배참석빈도와 신앙의 중요성 모두가 기부참여 및 기부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Regnerus et al., 1998; Vaidyanathan et al., 2011<sup>3)</sup>). 한편 국내에서는 제한된 연구(강철희 외, 2011; 2012)에서만 종교성과 관련된 분석이 이루어져왔는데, 종교성을 종교활동의 적극성으로 측정한 이들

연구에서도 종교성이 기부행동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이런 경향성과는 다르게 종교성이 세속적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Eckel과 Grossman(2004: 286)는 실험연구를 통해 예배 참석의 정기성을 통해 구분한 종교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세속적 기부규모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결과가 여러 연구들(Lunn et al., 2001; Wang and Graddy, 2008; Vaidyanathan et al., 2011<sup>4</sup>); Forbes and Zampelli, 2013)에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신앙의 중요성이 세속적 기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Brown and Ferris, 2007; Vaidyanathan et al., 2011); Forbes and Zampelli, 2013). 그런 이유는 신앙의 중요성이 강할수록 세속적 기부보다는 종교적 기부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Forbes and Zampelli, 2013: 2488).

이와 같이 최근의 해외연구들은 종교성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양한 실증적 분석 및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성의 세속적 기부행동에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 및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종교성은 종교가 있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해야 생성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전의 연구와는 다르게 종교와 세속적 기부의 관계와 더불어 종교성의 조절효과에 주목해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3)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크게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나눔경험과 관련 요인 등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가구원 수, 결혼상태, 취업여부 등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심리사회적 요인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기부대상과의 심리사회적 거리수용도 등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나눔경험 요인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나눔교육경험 등의 영향력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들 요인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과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라 기부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황창순·강철희, 2002; Bekkers, 2004; Van Slyke and Brooks, 2005). 연령 역시 많은 연구들에서 기부행동과 정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되고(박태규 외, 2008; 김지혜·정익중, 2012; Putnam, 2000; Bekkers and Wiepking, 2007), 교육수준도 기부행동과 정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다(김지혜·정익중, 2012; Bekkers, 2004; Wilhelm, 2006). 또한 소득도 기부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태규 외, 2008; 김지혜·정익중, 2012; Auten et al., 2002; Havens et al., 2007; Hill and Vaidyanathan, 2011). 취업과 관련해서는 미취업 상태의 사람들이 취업상태인 사람들에 비해 기부에의 참여가 미진하고 기부규모도 더 미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yons and Navison-Smith, 2006; Havens et al., 2007; Weerts and Ronca, 2007). 가구원 수도 기부행동과 정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

3)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선조직(charitable organizations by religious groups)에 대한 기부

4) 세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선조직(charitable organizations by nonreligious groups)에 대한 기부

로 논의된다(Jencks, 1987; Carroll et al., 2006). 기혼상태 역시 정적 방향에서 기부행동에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Brooks, 2005; Wilhelm et al., 2008).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기부에 대해 핵심 영향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Bekkers, 2004; Brooks, 2005)가 제시되고 있다. 기부대상과의 심리사회적 거리 수용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기부대상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문제일 때 더 적극적인 기부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Feldstein and Clotfelter, 1976; Morgan et al., 1977), 이와는 반대로 일반 사회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촌의 문제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경우 기부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강철희·주명관, 2008).

나눔경험 요인 중 자원봉사경험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 세속적 기부행동과 정적 관련성을 보인다고 보고된다(홍은진, 2005; 강철희·주명관, 2008; 박대규 외, 2008; Reed and Selbee, 2001; Van Slyke and Brooks, 2005). 그러나 일부의 연구에서는 기부와 자원봉사는 대체적 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일 수 있기에 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Jencks, 1987; Duncan, 1999).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기에 나눔의 경험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한 교육, 즉 나눔교육(강철희, 2006: 11)은 이후의 기부행동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은진, 2005; Wilhelm et al., 2008).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요인들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기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면서 종교와 기부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본다.

###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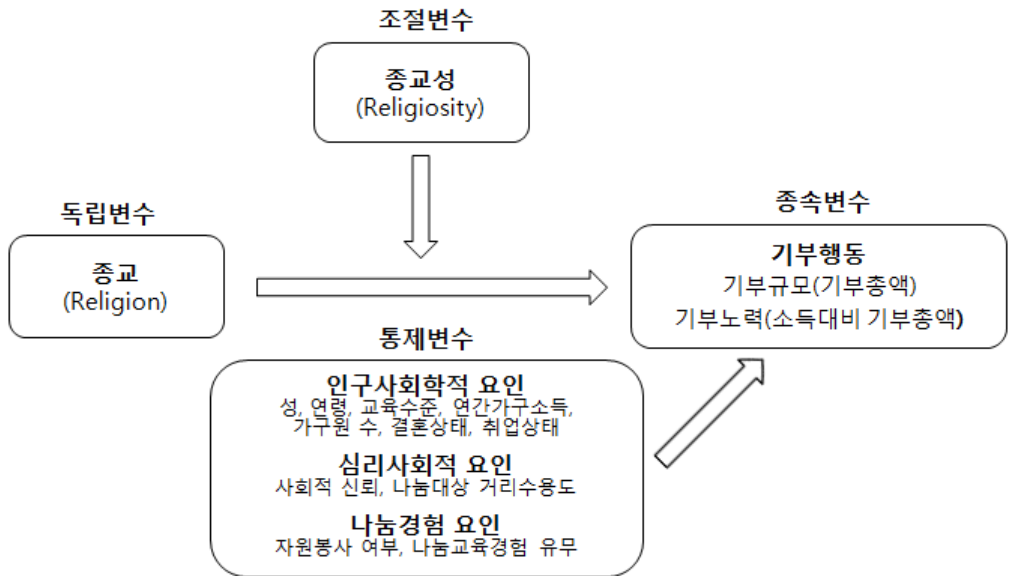
#### 1) 연구질문 및 연구모형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종교와 세속적 기부행동의 관계에 있어 특히 종교성의 조절효과에 관심을 갖는다. 종교성은 종교유무 및 종교유형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와 종교성 각각의 독립적 영향력과 두 변수의 결합적 작용을 모두 검증하기 보다는 <그림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종교와 종교성 두 변수의 결합적 작용에만 초점을 두어 모형을 구성한다<sup>5)</sup>. 즉 본 연구는 다른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부행동에 대한 종교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모형을 구성한다.

5) 실제 통계분석 결과, 개신교와 종교성 간 상관계수가 0.373이었고, 이의 영향으로 개신교와 개신교-종교성의 상호작용항 간 상관계수가 0.91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이런 이유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기부행동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 및 종교성의 조절효과에만 초점을 두고 종교성의 독립적 영향력 검증은 제외함.

본 연구의 모형 구성에 기반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다른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종교는 기부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가?
- 연구질문 2. 다른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종교성은 종교와 기부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갖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부행동으로 기부규모(philanthropic amount)와 기부노력(philanthropic effort)으로 세분화된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기부규모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세속적 현금기부와 현물기부를 합산한 물질적 기부(경조사비와 종교단체에 대한 현금 및 보시 제외)의 총금액으로 측정하였다. 현물기부의 경우는 현금으로 환산된 값을 갖고 총 세속적 기부금액의 합산에 활용하였다.

또한 개인의 기부금액이 경제적 요인 즉 소득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부행동에 대한 보다 다각적 이해를 제공시키기 위해 기부금액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인 기부노력(philanthropic effort)을 두 번째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기부노력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세속적 기부금액(경조사비와 종교단체 현금 및 보시 제외)을 연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종교(religion)이다. 종교는 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종교의 유형으로 ① 개신교 ② 가톨릭 ③ 불교/기타종교 ④ 종교없음으로 구분하였다. 모형의 검증 시에는 '종교없음'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더미변수화하여 활용하였다.

## (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종교에 대한 실제적 활동수준 또는 헌신수준으로 정의되는 종교성(religiosity)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종교성을 측정함에 있어 예배참석빈도,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종교활동의 적극성 등을 활용하곤 한다. 그러나 종교성을 기존의 방식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존재하지 않기에 종교성을 측정하는 대리변수(proxy measure)로 '가구소득대비 종교헌금의 비율'을 활용한다.<sup>6)</sup> 일반적으로 예배참석빈도나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종교헌금 규모에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Lunn et al., 2001; Wang and Graddy, 2008), 종교성과 종교헌금의 규모는 유사한 양상(parallel pattern)을 보이기 때문이다(Wilhelm et al., 2007: 227-228). 그러나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헌금 총액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종교적 헌금의 절대적 규모 방식의 종교성 측정은 다소의 문제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대비 종교헌금의 비율이라는 상대적 방식에서 종교성을 측정한다. 즉 본 연구에서 종교성은 지난 1년간 종교단체에 헌금 및 보시한 총 금액(현물의 경우는 현금으로 환산된 값)을 응답자의 연간가구소득으로 나눈 소득 대비 종교헌금의 비율로 측정한다.

그리고 종교와 종교성의 상호작용항을 이들 변수 간의 곱으로 환산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각 종교성의 값에서 종교성의 평균값을 뺀 편차점수를 활용하는 방법, 즉 중심화(mean-centering)를 통한 편차점수 값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항을 측정(Cronbach, 1987: 415)한다.

##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선택한 통제 요인, 즉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나눔경험의 요인에 속한 변수들의 측정방법은 <표 1>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6)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자료는 "귀하는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라는 문항이 있음. 응답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점)'에서부터 '전혀 활동하지도 않는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종교적 참여에 대한 주관적 기준일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음.

〈표 1〉 주요 변수의 내용과 측정 방법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 변수	기부행동	① 기부규모 = 연간 기부금 총액 (현금+현물)
		② 기부노력 = 연간 기부총액(종교헌금, 경조사비 제외) ÷ 연간가구 소득 × 100
독립변수	종교(d)	종교없음=0, 개신교·가톨릭·불교/기타종교 각각=1
조절변수	종교성	연간 종교헌금 총액 / 연간가구소득 × 100
		성(d)    남성=1, 여성=0
인구 사회학적 요인	연령	만 연령
	교육수준(d)	중학교 졸업 이하=0, 고등학교 졸업/전문대재학이상 각각=1
	연가구소득	연간가구소득의 자연로그값
	가구원 수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 수
	결혼상태(d)	미혼·이혼·사별=0, 기혼=1
	취업상태(d)	미취업=0, 취업=1
	통제변수	사회적 신뢰
심리 사회적 요인	기부대상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1 나와 관계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2
	거리수용도	국내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3 국제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4
나눔 경험 요인	자원봉사 여부(d)	2011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하지 않았음=0, 하였음=1
	나눔교육경험 유무(d)	학창시절 나눔에 대한 교육/경험유무, 지인의 나눔 관찰유무 없음=0, 있음=1

(d): dummy variable

###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2 기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Giving Korea 2012)』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 이 조사는 2012년 6월 21일부터 7월 26일 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표본의 추출은 다단계 지역표본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과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의 2단계 추출방식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전문 면접인에 의해 대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은 2011년 한 해 동안의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초점을 두어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활용된 총 유효표본의 크기는 원자료와 마찬가지로 1,029명이다.

#### 4) 자료분석방법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한다. 그리고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부규모와 기부노력은 0의 값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최소자승법(OLS)에 기초한 회귀분석을 적용하면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Hill and Vaidyanathan, 2011: 166) 기부규모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최근 토빗 회귀분석이 활용되어 왔다(Wang and Graddy, 2008; Wilhelm, 2010; Hill and Vaidyanathan, 2011; Forbes and Zampelli, 2013). 이에 본 연구도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토빗 회귀분석을 선택한다.

토빗 회귀모형은 대표적인 이변량모형으로 자료 내에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특정한 값(본 자료에서는 '0')이 적지 않게 존재할 때 자료를 효과적으로 모형화 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Amemiya, 1984: 3). 즉 정보가 단절된 표본(censored sample) 또는 절삭된 표본(truncated sample)에 대해 최대우도법의 방식을 사용하여 본 자료의 종속변수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0'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Maddala, 1983: 157-158). 본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한 토빗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 = x_i\beta + u_i, i = 1, 2, \dots, n$$

$$y_i = y^{*i} \quad \text{if } y^{*i} > 0$$

$$y_i = 0 \quad \text{if } y^{*i} \leq 0$$

### 4. 연구결과

#### 1) 기술적 분석의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변수

본 조사의 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보면 원 자료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시민의 일반 속성 분포에 맞춰 표본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특성과 거의 유사하다. <표 2>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이, 총 유효표본의 수 1,029 중 남성이 49.4%로 여성 50.6%와 거의 같은 분포이고, 연령은 19~29세가 18.6%, 30~39세 20.5%, 40~49세 22.0%, 50~59세 18.7%, 60세 이상 20.3%로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갖는다. 평균 연령은 44.7세, 표준편차는 15.2세이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8.3%, 고등학교 졸업 37.3%, 전문대 재학 이상 43.4%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399만원이 2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22.9%), 400~499만원(18.4%)의 순이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가구소득은 352.9만원이고 표준편차는 183.9원이다.

가구원 수는 4명인 가구가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3명인 가구 21.6%, 2명인 가구 16.8%의 순이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23.9%, 기혼 69.4%, 이혼 2.0%, 사별 4.6%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없는 응답자에 비해 약 2배 정도 더 많다. 직업은 주부가 2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관리·전문직(20.1%), 생산·기능·노무직(15.8%), 자영업(13.6%) 순이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29)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남성	508	49.4
	여성	521	50.6
연령	19~29세	191	18.6
	30~39세	211	20.5
	40~49세	226	22.0
	50~59세	192	18.7
	60세 이상	209	20.3
		평균 44.7세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88	18.3
	고등학교 졸업	384	37.3
	전문대재 이상	447	43.4
	모름/무응답	10	1.0
월평균 가구 소득	99 만원 이하	56	5.5
	100~199 만원	87	8.5
	200~299 만원	167	16.2
	300~399 만원	272	26.4
	400~499 만원	189	18.4
	500 만원 이상	236	22.9
	모름/무응답	21	2.0
	평균 352.9만원		표준편차 183.9
가구원 수	1명	79	7.7
	2명	173	16.8
	3명	222	21.6
	4명	429	41.7
	5명 이상	126	12.2
결혼 상태	미혼	245	23.9
	기혼	711	69.4
	이혼	21	2.0
	사별	47	4.6
	모름/무응답	5	0.5
직업	농·림·어업	31	3.0
	자영업	140	13.6
	판매·영업·서비스직	122	11.9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생산·기능·노무직	162	15.8
	사무·관리·전문직	207	20.1
	주부	219	21.3
	학생	78	7.6
	무직/퇴직/기타	68	6.6
	모름/무응답	1	0.1

(2)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나눔경험 특성: 통제변수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표 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신뢰의 평균은 2.37점으로 중간 점수인 2.5점보다 다소 낮다.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볼 때, 다양한 대표적 사회기관에 대해 측정한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중간 이하 즉 다소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기부대상 거리수용도는 범주형 응답으로 살펴보았을 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가 4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국내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35.7%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1~4점의 연속형 응답으로 간주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평균이 2.04점으로 나타나 중간점수인 2.5점보다 다소 낮았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신뢰와 기부대상 거리수용도의 현황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신뢰 (n=1,029)	2.37	0.42	1	4

변수	구분	빈도	비율
기부대상 거리수용도 (n=992)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486	48.9
	나와 관계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	69	6.9
	국내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354	35.7
	국제적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84	8.4
		평균 2.04	표준편차 1.09

조사대상자의 나눔경험 분포를 보면, <표 4>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에서 해당 연도에 자원봉사활동을 행한 사람은 26.5%, 행하지 않은 사람이 7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형태의 나눔교육의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 및 학교 등에서의 나눔교육 경험자는 77.7%로 무경험자의 22.3%보다 3.5배 가량 많다. 즉 나눔에 대한 직·간접적 참여교육의 경험을 3/4 이상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나눔경험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자원봉사활동 여부 (n=1,029)	하였음	273	26.5
	하지 않았음	756	73.5
나눔교육경험 유무 (n=1,029)	있음	799	77.7
	없음	230	22.3

## (3) 조사대상자의 종교 및 종교성 현황: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종교의 현황은 〈표 5〉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 중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50.3%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전체의 23.8%, 가톨릭 신자의 비율 7.2%, 불교 신자의 비율 18.2%, 기타 종교 신자의 비율 1.2%이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종교 현황

(n=1,029)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종교유무	종교있음	518	50.3
	종교없음	498	48.4
	모름/무응답	13	1.3
종교유형	개신교	245	23.8
	가톨릭	75	7.2
	불교	187	18.2
	기타종교	12	1.2

한편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종교성과 관련해서 조사대상자의 가구소득 대비 종교기부 규모로 환산한 비율을 보면, 〈표 6〉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 모두를 포함시켜 산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개인은 연간 가구소득의 0.92% 수준에서 종교기부를 하고, 종교가 있는 사람<sup>7)</sup>만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평균 연간 가구소득의 1.81% 수준에서 종교기부를 행하며, 종교기부를 행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로만 한정할 경우 평균 연간 가구소득의 2.45% 수준에서 종교기부를 행하고 있다.

7)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기부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종교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n이 다르게 나타남.

〈표 6〉 조사대상자의 종교성 현황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교성	1,008명	0.92%	2.78	0%	41.67%
	512명	1.81%	3.69	0%	41.67%
	379명	2.45%	4.11	0.01%	41.67%

종교유형별 가구소득 대비 종교기부 규모 즉 종교성의 평균을 산출해 보면, 개신교의 평균이 2.77%로 가장 높고, 기타종교가 2.00%, 가톨릭이 1.25%, 불교가 0.77%의 순이다.

〈표 7〉 조사대상자의 종교유형별 종교성 평균

(n=512)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개신교	242명	2.77%	4.74
가톨릭	74명	1.25%	1.60
불교	185명	0.77%	2.13
기타종교	12명	2.00%	2.61

(4) 조사대상자의 기부 관련 현황: 종속변수

조사대상자의 기부 관련 현황 분석의 결과는 〈표 8〉와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 중 57.5%가 작년 한 해 동안 세속적 기부(secular giving)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범주에 대한 기부규모는 전체 평균이 129,480원이고, 기부 유경험자 즉 기부를 행한 사람만을 보았을 때는 그 평균이 226,13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대비 기부규모의 정도, 즉 기부노력(philanthropic effort)은 전체 평균이 0.34%, 기부 유경험자 평균이 0.5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부를 행한 사람과 기부를 행하지 않은 사람 모두를 포함시켜 산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개인은 연간 가구소득의 0.34% 정도를 기부하고, 기부를 행한 사람만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평균 연간 가구소득의 0.59% 정도를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표 8〉 조사대상자의 기부참여 현황

(n=1,029)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기부여부	기부함	591	57.5
	기부하지 않음	438	42.5

〈표 9〉 조사대상자의 기부규모 및 기부노력 현황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부규모	1,029명	129,48천원	453.40	0원	5,220천원
	589명	226.13천원	580.86	1천원	5,220천원
기부노력	1,008명	0.34%	1.44	0%	32.50%
	579명	0.59%	1.86	0.002%	32.50%

## 2)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는 〈표 10〉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부규모 및 기부노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가톨릭-종교성의 상호작용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는 종교성과 0.373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개신교와 개신교-종교성 상호작용항 간의 관계도 0.323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성 변수와 개신교-종교성의 상호작용항 간 상관계수가 0.910이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가구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종교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sup>8)</sup>

〈표 10〉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a	b	c	d	e	f	g	h	i
a. 기부규모	1								
b. 기부노력	.796***	1							
c. 개신교	.102**	.088**	1						
d. 가톨릭	.149***	.137***	-.159***	1					
e. 불교/기타	-.024	-.028	-.278***	-.139***	1				
f. 종교성	.155***	.197***	<b>.373***</b>	.032	-.016	1			
g. 개신교× 종교성	.102**	.127***	<b>.323***</b>	-.052	-.091**	<b>.910***</b>	1		
h. 가톨릭× 종교성	<b>.238***</b>	<b>.379***</b>	-.031	.193***	-.027	.157***	-.010	1	
i. 불교/기타× 종교성	.008	.013	.009	.005	-.034	.346***	.003	.001	1

\*\*p<.01 \*\*\*p<.001

8) 앞서의 연구방법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렇게 높은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서도 종교성을 독립변수로도 설정해서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모형에서 제외함.



### 3) 종교가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종교성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 (1) 기부규모에 대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기부규모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과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심리 사회적 요인과 나눔경험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분석의 결과는 <표 11>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 중 개신교와 가톨릭이 기부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큰 규모의 기부를 행하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기부규모가 더 크다는 Van Slyke와 Brooks(2005: 2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지니는 특성, 즉 이웃에 대한 돌봄의 실천을 통해 자기 종교의 기본 속성을 내재화하고 외재화시키는 것(Robbins, 2006: 19)이 보편적으로 반영된 현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조절변수 중에서는 기부규모에 개신교-종교성의 상호작용항과 가톨릭-종교성의 상호작용항이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종교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의 종교성이 강할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세속적 기부를 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성의 기부행동에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결과들(강철희 외, 2011: 2012; Regnerus et al., 1998; Reed and Selbee, 2001; Bekkers, 2003; Eckel and Grossman, 2003; Lyons and Nivison-Smith, 2006; Bekkers and Schuyt, 2008; Vaidyanathan et al., 2011)에 더해 특정 종교적 배경이 종교성과 결합될 때 세속적 기부행동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기부규모에 대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취업자인 경우, 기부대상에 대한 거리수용도가 관대할수록,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나눔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기부금액의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기부규모에 대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기부노력		Coef.	Std. Err	t	
독립변수	개신교 <sup>1)</sup>	113,154	56,801	1,990*	
	가톨릭 <sup>1)</sup>	169,197	85,299	1,980*	
	불교/기타종교 <sup>1)</sup>	30,326	58,113	0,520	
조절변수	개신교×종교성	20,529	9,275	2,210*	
	가톨릭×종교성	257,223	46,258	5,560***	
	불교/기타종교×종교성	-8,060	22,537	-0,360	
통계변수	성 <sup>2)</sup>	-146,683	47,998	-3,060**	
	연령	7,420	2,339	3,170**	
	인구사회 학적 요인	교육수준 <sup>3)</sup> — 고졸	53,543	72,257	0,740
		— 대재 이상	155,660	85,348	1,820
		연간가구소득(log)	112,668	46,462	2,420*
		가구원수	-9,262	21,094	-0,440
		결혼상태 <sup>4)</sup>	158,597	58,289	2,720**
		취업여부	167,265	51,123	3,270**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적신뢰	52,607	54,195	0,970
		기부대상거리수용도	45,504	19,850	2,290*
나눔경험 요인	자원봉사여부	330,660	48,570	6,810***	
	나눔교육경험유무	185,632	56,741	3,270**	
	상수	-2076,230	408,538	-5,080***	
	LR Chi-Square		204,83***		
	number of obs		949		
	Log likelihood		-4545,198		

\*p<.05 \*\*p<.01 \*\*\*p<.001

1) ref. 종교없음 2) 남성=1, 여성=0 3) ref. 중졸이하 4) 기혼=1, 미혼·이혼·사별=0

(2) 기부노력에 대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부노력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과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2〉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종교는 기부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절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기부규모와는 달리 가구소득 대비 기부규모 즉 기부의 상대적 비중을 보여주는 기부노력에 있어서는 종교적 차이 그 자체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조절변수의 경우 기부노력에 대한 개신교-종교성의 상호작용항과 가톨릭-종교성의 상호작용항이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종교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의 종교성이 강할수록 종교를 갖지 않은 이들에 비

해 소득 대비 더 많은 기부, 즉 기부노력을 행하고 있음을 제시해 준다. 더 나아가 기부규모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적 배경이 종교성과 결합될 때 세속적 기부행동, 구체적으로는 기부노력이 보다 촉진되는 경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부노력에 대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자인 경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나눔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기부노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기부노력에 대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기부노력		Coef.	Std. Err	t	
독립변수	개신교 <sup>1)</sup>	0.258	0.174	1.480	
	가톨릭 <sup>1)</sup>	0.294	0.265	1.110	
	불교/기타종교 <sup>1)</sup>	0.026	0.177	0.150	
조절변수	개신교×종교성	0.078	0.028	2.750**	
	가톨릭×종교성	1.324	0.142	9.300***	
	불교/기타종교×종교성	-0.031	0.068	-0.460	
통제변수	성 <sup>2)</sup>	-0.464	0.147	-3.160**	
	연령	0.019	0.007	2.670**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육수준 <sup>3)</sup> 고졸	0.142	0.220	0.650
		대제이상	0.327	0.260	1.260
	연간가구소득(log)	-0.065	0.141	-0.460	
	가구원수	-0.011	0.064	-0.170	
	결혼상태 <sup>4)</sup>	0.231	0.177	1.300	
	취업여부	0.524	0.156	3.350**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적신뢰	0.296	0.166	1.780
		기부대상거리수용도	0.071	0.061	1.180
나눔경험 요인	자원봉사여부	0.893	0.149	6.010***	
	나눔교육경험유무	0.614	0.174	3.530***	
상수		-2.860	1.241	-2.310*	
LR Chi-Square			221.55***		
number of obs			949		
Log likelihood			-1321.419		

\*p<.05 \*\*p<.01 \*\*\*p<.001

1) ref. 종교없음 2) 남성=1, 여성=0 3) ref. 중졸이하 4) 기혼=1, 미혼·이혼·사별=0

정리해 보면, 본 연구는 기부규모와 기부노력 모두에서 종교성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는 종교유형이나 종교성의 강도라는 단편적인 속

성에 더해 특정 종교적 배경이 종교성과 결합될 때 세속적 기부행동이 더욱 강화되어지는 양상이 존재함을 새롭게 제시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5. 결론 및 함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현대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제적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 기부보다 정확하게는 세속적 기부행동(secular giving behavior)과 관련해서 종교는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다. 최근에는 종교의 영향력에 더해서, 기부행동에 대한 종교성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종교와 세속적 기부행동의 관계에 있어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종교와 기부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넘는 이론적 지식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전체의 세속적 기부의 평균 규모를 보면 연간 13만원 정도이고,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기부규모는 연간 23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대비 각 개인의 기부규모로 환산한 기부노력의 정도를 보면, 조사대상자 전체의 세속적 기부노력은 연 가구소득 대비 평균 0.34%정도이고,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평균 0.5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의 종교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 중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48.4%,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50.3%인데, 대상 전체를 놓고 볼 때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23.8%, 가톨릭 신자의 비율 7.2%, 불교 신자의 비율 18.2%, 기타 종교 신자의 비율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소득 대비 종교헌금 규모로 측정한 종교성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이 0.92%였고, 개신교는 평균 2.77%, 기타종교 2.00%, 가톨릭 1.25%, 불교 0.7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속적 기부의 절대적 규모에 대한 종교적 배경에 따른 차이 및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토빗 회귀분석에 기초해 검증해본 결과,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큰 규모의 세속적 기부를 행하고 동시에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과 종교성은 세속적 기부의 절대적 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결합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속적 기부노력에 대한 종교적 배경에 따른 차이 및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토빗 회귀분석에 기초해 검증해본 결과, 종교 변수만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고,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과 종교성은 세속적 기부의 상대적 규모 즉 기부노력에 정적인 방향에서 결합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기부규모와 기부노력 모두에서 종교성이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새롭게 제시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배경이 나눔행동의 원천적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이전의 연구 및 논의(Van Slyke and Brooks, 2005: 207)를 넘는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즉 세속적 기부행동에서 중요한 차이가 종교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해서 종교유형과 종교성을 결합시켜 이해할 때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세속적 기부행동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경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부규모 보다는 경제적 상황을 통제한 기부노력에서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들 종교에서 종교성이 세속적 기부에 대해 개인의 상황을 초월하는 효과를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지니고 있음을 제시해 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종교성은 가구소득 대비 종교적 기부의 비율로 측정되고 세속적 기부노력은 가구소득 대비 세속적 기부의 비율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부노력에 대해 개신교 및 가톨릭의 배경이 종교성과 보다 높은 수준의 결합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결과는 이들 종교의 경우 개인 내에서 종교헌금의 상대적 규모와 사회를 위한 세속적 기부의 상대적 규모가 어느 하나를 줄이는 효과 즉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의 관계로 설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정리해 보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종교, 종교성, 세속적 기부로 이어지는 기부행동 선행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보지 못했던 종교와 종교성의 조절효과에 주목하여 기부행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부행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모금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특히 종교적 배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관들의 모금전략 마련에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천적 의미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기독교 배경을 갖는 사람들의 경우 종교성과 세속적 기부행동이 구축효과와 관계가 아닌 구입효과(crowding-in effect)의 관계라는 것은 종교적 헌신이 세속적 기부활동에 오히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런 특정 종교를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관들의 모금 확대 및 강화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종교적 헌신 즉 종교성이 기회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의미와 시사점을 갖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차자료의 사용이라는 한계로 인해 주어진 자료의 범위 내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갖는다. 예로, 종교성의 경우, 자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타당도와 객관성을 확보해 보려했으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다른 방식의 측정, 즉 예배참석빈도나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아울러 세속적 기부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3의 변수들에 대한 포괄적 통제 등의 시각에서 볼 때 다소의 제한점을 지닐 수도 있다.

향후 본 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보다 포괄적 자료 그리고 보다 정교한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을 적용한 후속연구들이 지속되어 종교와 종교성, 그리고 세속적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견고한 지식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후속연구의 강화와 확장을 통해 새로운 지식에 기반한 민간 복지자원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강철희, 2006, “나눔의 사회화 전략: 나눔문화 구축을 위한 대안 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8주년 기념 나눔문화교육 확산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pp. 5-31, 2006년 11월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 강철희 · 조승중 · 안성호, 2011, “저소득층의 기부행동에 관한 연구: 기부참여와 기부노력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88-120.
- 강철희 · 주명관, 2008,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및 미참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1): 1-38.
- 강철희 · 최명민 · 김수연, 2012,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행복감과 사회적 신뢰 및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2): 57-82.
- 김지혜 · 정익중, 2012,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한국사회복지학』, 64(2): 133-158.
- 박태규 · 윤병호 · 정진욱, 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1(3): 79-100.
- 아름다운 재단, 2010, 『기빙코리아 2010: 기부문화 길을 묻다』, 서울: 아름다운북.
- 홍은진, 2005, “기부참여와 기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3): 123-152.
- 황창순 · 강철희, 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2): 33-73.
- Amemiya, T., 1984, “Tobit models: A survey”, *Journal of Econometrics*, 24: 3-61.
- Auten, G., Sieg, H., and Clotfelter, T., 2002, “Charitable giving, income, and taxes: An analysis of panel dat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1): 371-382.
- Bekkers, R., 2003, “Trust, accreditation, and philanthropy in the Netherland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2(4): 596-615.
- Bekkers, R., 2004,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trecht University.
- Bekkers, R., and Schuyt, T., 2008, “And who is your neighbor? explaining denominational differences in charitable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50(1): 74-96.
- Bekkers, R., and Wiepking, P., 2007, “Generosity and philanthropy: A literature review”,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015507](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015507).
- Bielefeld, W., Rooney, P., and Steinberg, K., 2005, “How do need, capacity, geography, and politics influence giving?”, 127-185, in *Gifts of Time and Money: The Role of Charity in America's Communities*, edited by Brooks, A.,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 Inc.
- Brooks, A., 2004, “What do ‘don't know’ responses really mean in giving survey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3: 324-434.
- Brooks, A., 2005, “Does social capital make you generous?”, *Social Science Quarterly*, 86: 1-15.
- Brown, E., and Ferris, J., 2007, “Social capital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1): 85-99.

- Carroll, J., McCarthy, S., and Newman, C., 2006, "An econometric analysis of charitable donations in the Republic of Ireland",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36: 229-298.
- Chaves, M., 2004, *Congregations in Americ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ronbach, L., 1987, "Statistical tests for moderator variables: Flaws in analyses recently proposed", *Psychological Bulletin*, 102(3): 414-417.
- Duncan, B., 1999, "Model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 213-242.
- Eckel, C., and Grossman, P., 2003, "Rebate versus matching: Does how we subsidize charitable contributions matte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 681-701.
- Eckel, C., and Grossman, P., 2004, "Giving to secular causes by the religious and nonreligious: An experimental test of the responsiveness of giving to subsidi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3(2): 271-289.
- Edmundson, B., 1986, "Who gives to charity?", *American Demographic*, 8: 45-49.
- Feldstein, M., and Clotfelter, C., 1976,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United States: A microeconomic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 1-26.
- Forbes, F., and Zampelli, E., 2013, "The impacts of religion, political ideology, and social capital on religious and secular giving: Evidence from the 2006 Social Capital Community Survey", *Applied Economics*, 45: 2481-2490.
- Halfpenny, P., 1990, *Charity Household Survey 1988/89*, Tonbridge, UK: Charities Aid Foundation.
- Handel, G., 2009, *Social Welfare in Western Societ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Havens, J., O'Herlihy, M., and Schervish, P., 2007, "Charitable giving: How much, by whom, to what, and how?", 542-567, in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edited by Powell, W., and Steinberg, R.,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ill, J., and Vaidyanathan, B., 2011, "Substitution or symbiosis?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and secular giving", *Social Forces*, 90(1): 157-180.
- Hodgkinson, V., 1990, "The future of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The inseparable link between religious community and individual generosity", 284 - 312, in *Faith and Philanthropy in America: Exploring the Role of Religion in America's Voluntary Sector*, edited by Wuthnow, R., and Hodgkinson, V., San Francisco: Jossey Bass.
- Hodgkinson, V., and Weitzman, M., 1996,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Independent Sector.
- Jencks, C., 1987, "Who gives to what?", 321-339, in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edited by Powell, W., and Steinberg, R.,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Lunn, J., Klay, R., and Douglass, A., 2001, "Relationships among giving, church attendance, and religious belief: The case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0(4): 765-775.
- Lyons, M., and Nivison-Smith, I., 2006, "Religion and giving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1: 419-436.
- Maddala, G., 1983, *Limited-dependa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gan, J., Dye, R., and Hybels, J., 1977, "Results from two national surveys of philanthropic activity", Research Papers, appendix to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Private Philanthropy and Public Need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Treasury.
- Park, T. K., and Park, S. B., 2004, "An economic study on charitable giving of individuals in Korea: Some new findings from 2002 survey data", Presented at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 in Toronto, Canada, July 11-14, 2004.
- Payton, R., 2004, "Philanthropy and the good Samaritan", 373-380 in *Philanthropy in America: A Comprehensive Historical Encyclopedia Volume 2*, edited by Burlingame, D., Santa Barbara: ABC-Clio, Inc.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eed, P., and Selbee, L., 2001, "The civic core in Canada: Disproportionality in charitable giving, volunteering, and civic particip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4): 761-780.
- Regnerus, M., Smith, C., and Sikkink, D., 1998, "Who gives to the poor? The influence of religious tradition and political location on the personal generosity of americans toward the poor",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3): 481-493.
- Robbins, K., 2004, "History of philanthropy", 234-243, in *Philanthropy in America: A Comprehensive Historical Encyclopedia Volume 1*, edited by Burlingame, D., Santa Barbara: ABC-Clio, Inc.
- Robbins, K., 2006, "The nonprofit sector in historical perspective: Traditions of philanthropy in the West", 13-30, in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edited by Powell, W., and Steinberg, R.,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Vaidyanathan, B., Hill, J., and Smith, C., 2011, "Religion and charitable financial giving to religious and secular causes: Does political ideology matter?",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0(3): 450-469.
- Van Slyke, D., and Brooks, A., 2005, "Why do people give? New evidence and strategies for nonprofit manager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5(3): 199-222.
- Wang, L., and Graddy, E., 2008, "Social capital,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Voluntas*, 19: 23-42.
- Weerts, D., and Ronca, J., 2007, "Profiles of supportive alumni: donors, volunteers, and those 'who do it all'",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Advancement*, 7: 20-34.
- Wilhelm, M., 2006, "New data on charitable giving in the PSID", *Economics Letters*, 92(1): 26-31.
- Wilhelm, M., 2010, "Giving to organizations that help people in need: Differences across denominational identiti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9(3): 389-412.
- Wilhelm, M., Brown, E., Rooney, P., and Steinberg, R., 2008,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eneros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10-11): 2146-2156.
- Wilhelm, M., Rooney, R., and Tempel, E., 2007, "Changes in religious giving reflect changes in involvement: Age and cohort effects in religious giving, secular giving, and attendan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6(2): 217-232.
- Wuthnow, R., 1991, *Acts of Compassion: Caring for Others and Helping Ourselv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Giving Behavior -Analyzing Moderating Effect of Religiosity-

**Kang, Chulhee**

(Yonsei University)

**Hur, Younghye**

(Yonsei University)

**Choi, Younghoon**

(Community Chest of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religios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ecular giving behavior (absolute amount and philanthropic effort).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tilizes 'Giving Korea 2012' by the Beautiful Foundation and employs Tobit regression model.

Focusing on giving amount, major findings are that (1) Protestants and Catholics give greater amounts for secular cause than those with no religious affiliation; and (2) interaction between Protestants and religiosity and interaction between Catholics and religiosity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citizens' secular giving amount in a positive direction. Focusing on philanthropic effort (giving amount divided by family income), major findings are that (1)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types and citizens' philanthropic effort and (2) interaction between Protestants and religiosity and interaction between Catholics and religiosity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citizens' philanthropic effort in a positive direction.

This study provides new knowledge foundation on citizens' secular giving behavior and contributes to developing effective fundraising strateg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on religion-related donor markets.

Key words: giving behavior, giving amount, philanthropic effort, religion, religiosity, moderating effect